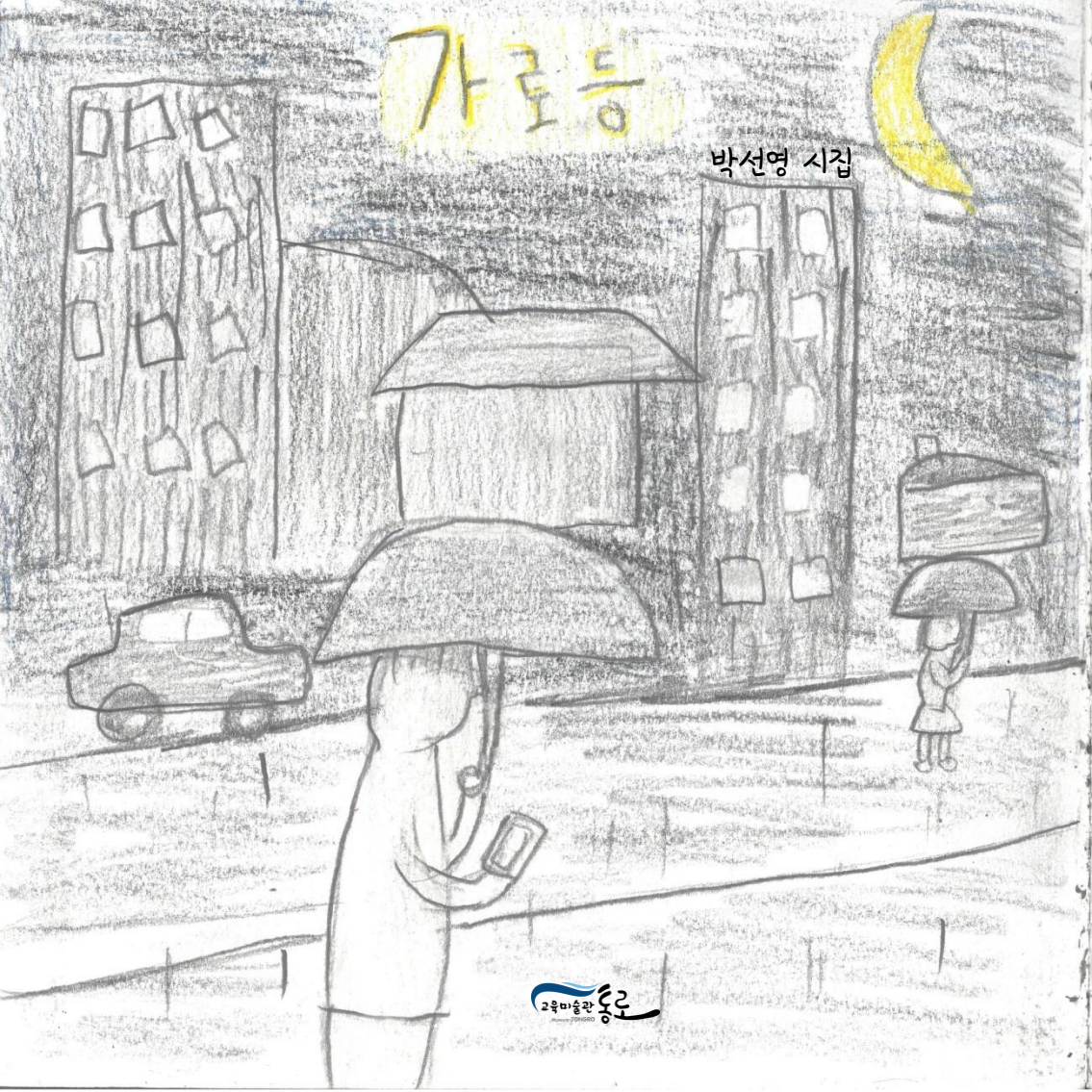


가로등

박선영 시집



[교실 속 그림책188] 박선영 시집

2019년 2월 6일 초판발행 2019-000188

| 지은이 | 박선영

| 지도 및 제작 | 이현아

| 펴낸곳 | 교육미술관 통로

| 홈페이지 | www.museum-tongro.com

| ISBN | 979-11-89671-20-4 75810 : 비매품

| 총서명 | 교실 속 그림책

| 세트번호 | 979-11-957446-5-7 (세트) 75810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와 교육미술관 통로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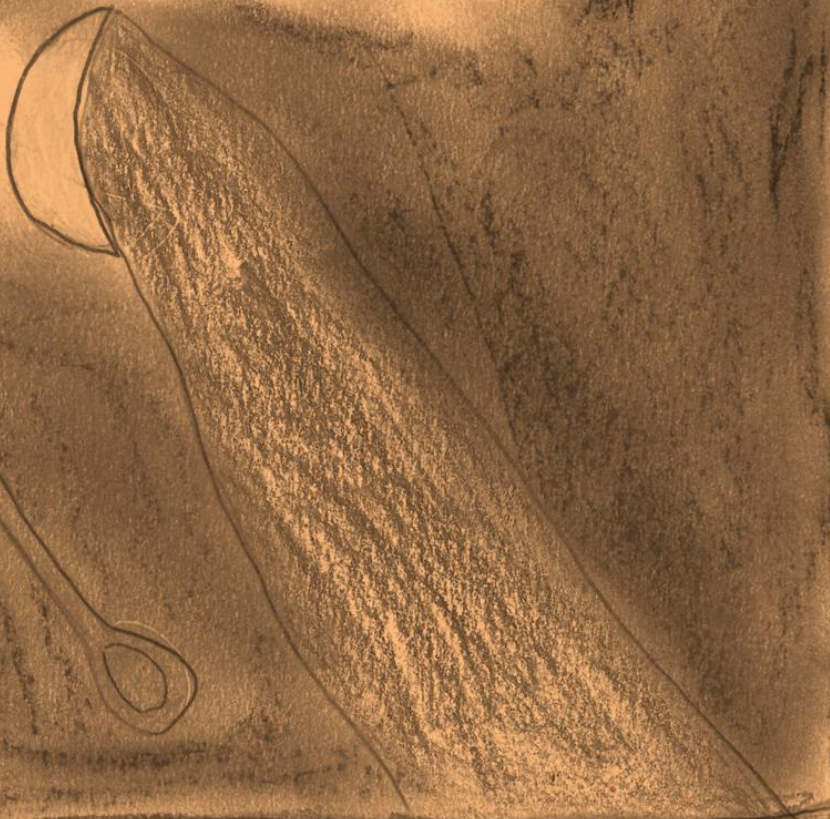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교실 속 그림책]의 모든 어린이창작그림책은

교육미술관 통로 www.museum-tongro.com에서 eBook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라 트 스키 레 가 차
○ — — — — ○



작가의 말

저는 어릴 때부터 멍하니 사람 또는 사물을 지켜보기를 좋아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멍해 보이면 누가 잡아간단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멍하니 사람이나 사물을 지켜봅니다.

이 시는 제가 그렇게 멍하니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서 했던 생각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거창한 메시지를 담았다기 보다 잠깐 잠깐 들었던 생각을 붙잡아 본 거예요.

이 책을 읽으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린이가 쓴 시'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아주세요.

그저 한 명의 사람이 쓴 시로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시 쓰기는 낚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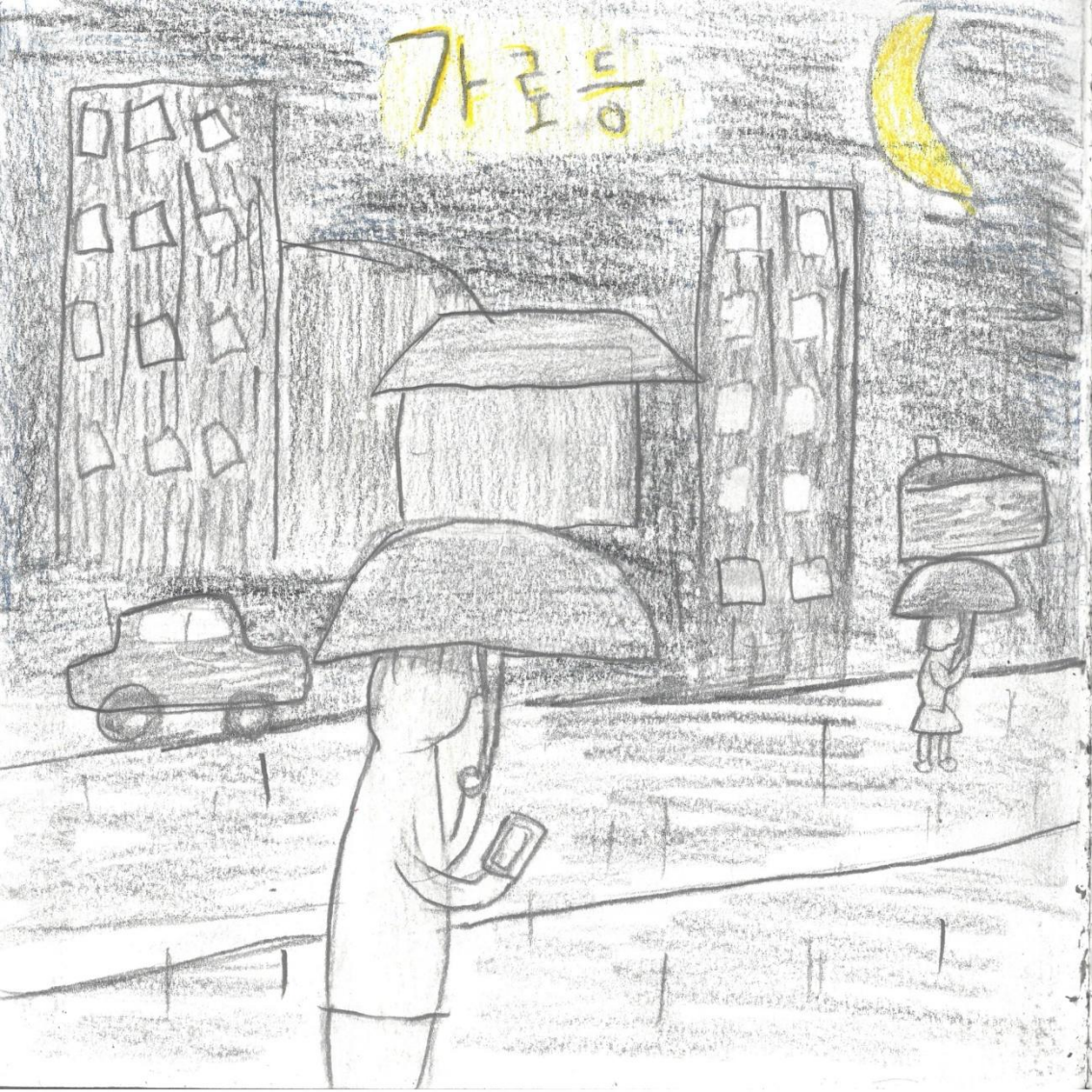
생각날 때마다 시를 쓰지만 그것이 작품이 되어 건져 올릴 때는 드물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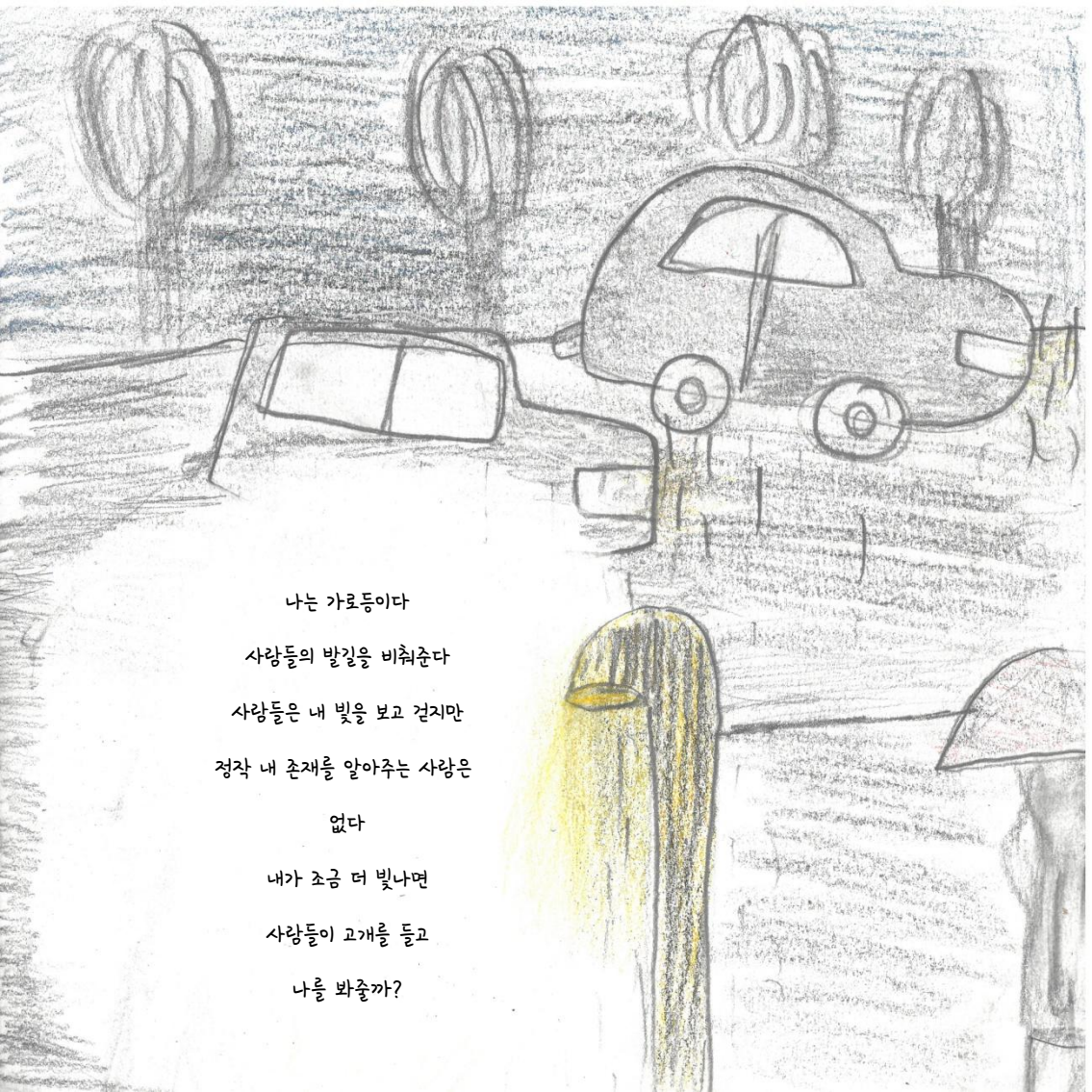
하지만 좋은 것이 올라오면 마치 월척을 잡아 올린 듯 매우 뿌듯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 그물을 펼쳐 보입니다.

가 로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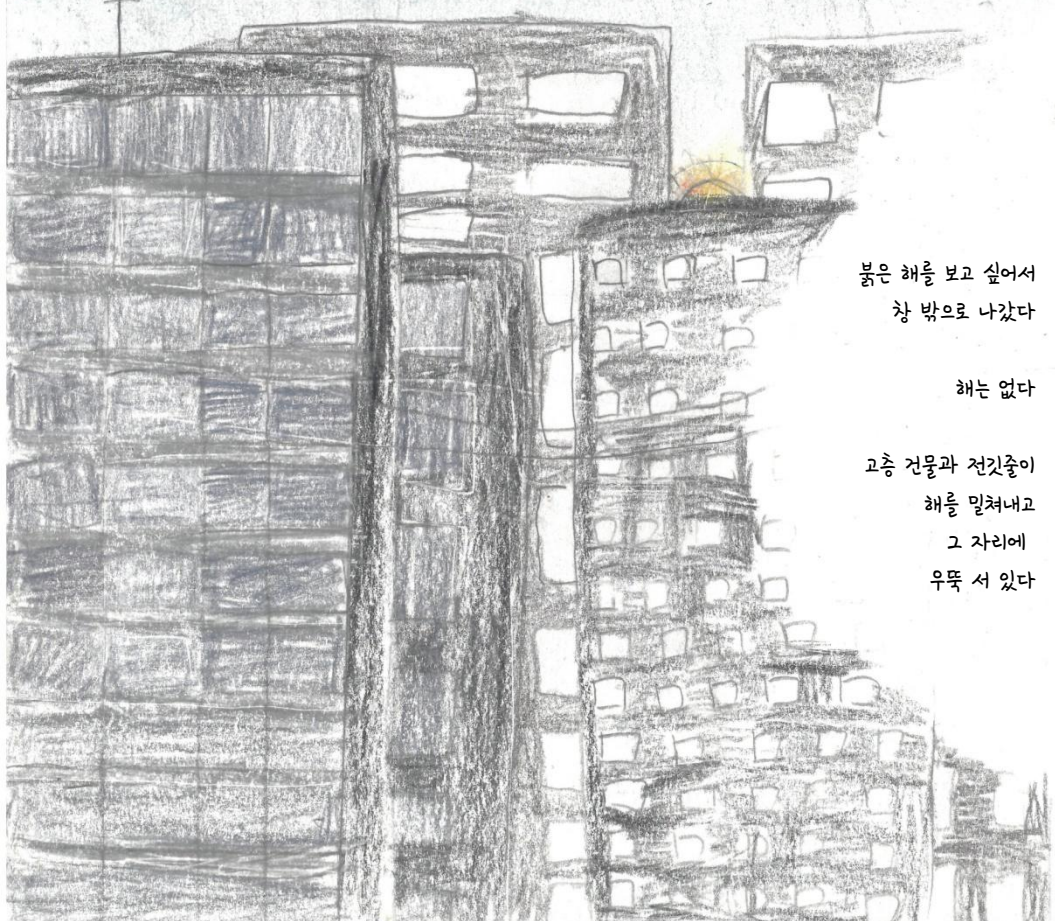
가도 등



A pencil drawing of a street scene. In the foreground, a street lamp with a yellow glow stands on the right. To its left, a car is parked. In the background, another car is visible, and several trees are scattered across the scene. The drawing is done in a simple, sketchy style with some shading.

나는 가로등이다
사람들의 발길을 비춰준다
사람들은 내 빛을 보고 걸지만
정작 내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
내가 조금 더 빛나면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나를 봐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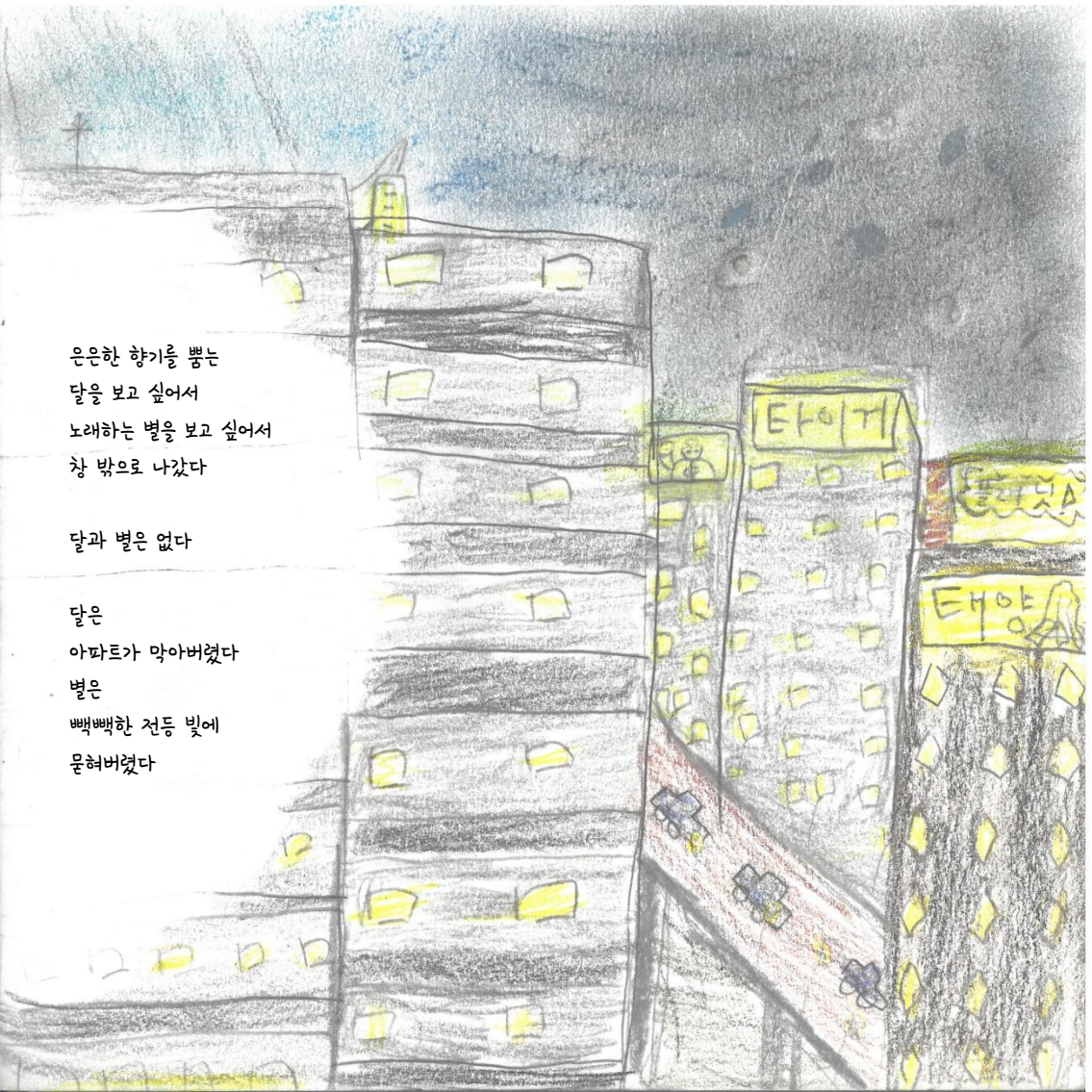
도시



붉은 해를 보고 싶어서
창 밖으로 나갔다

해는 없다

고층 건물과 전깃줄이
해를 밀쳐내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다



은은한 향기를 뿜는
달을 보고 싶어서
노래하는 별을 보고 싶어서
창 밖으로 나갔다

달과 별은 없다

달은
아파트가 막아버렸다
별은
백백한 전등 빛에
묻혀버렸다



길을 걷는데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나를 잡아먹을 듯 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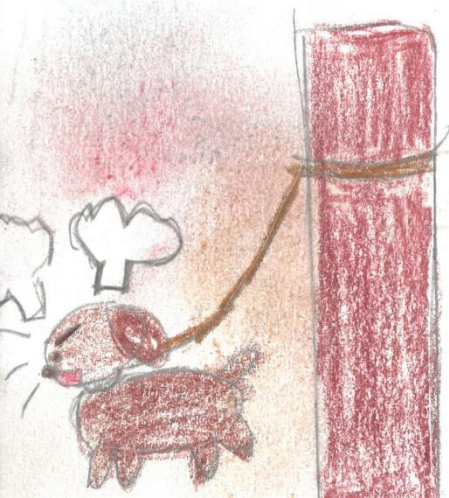
어디서 개소리가 나나 했더니

내 옆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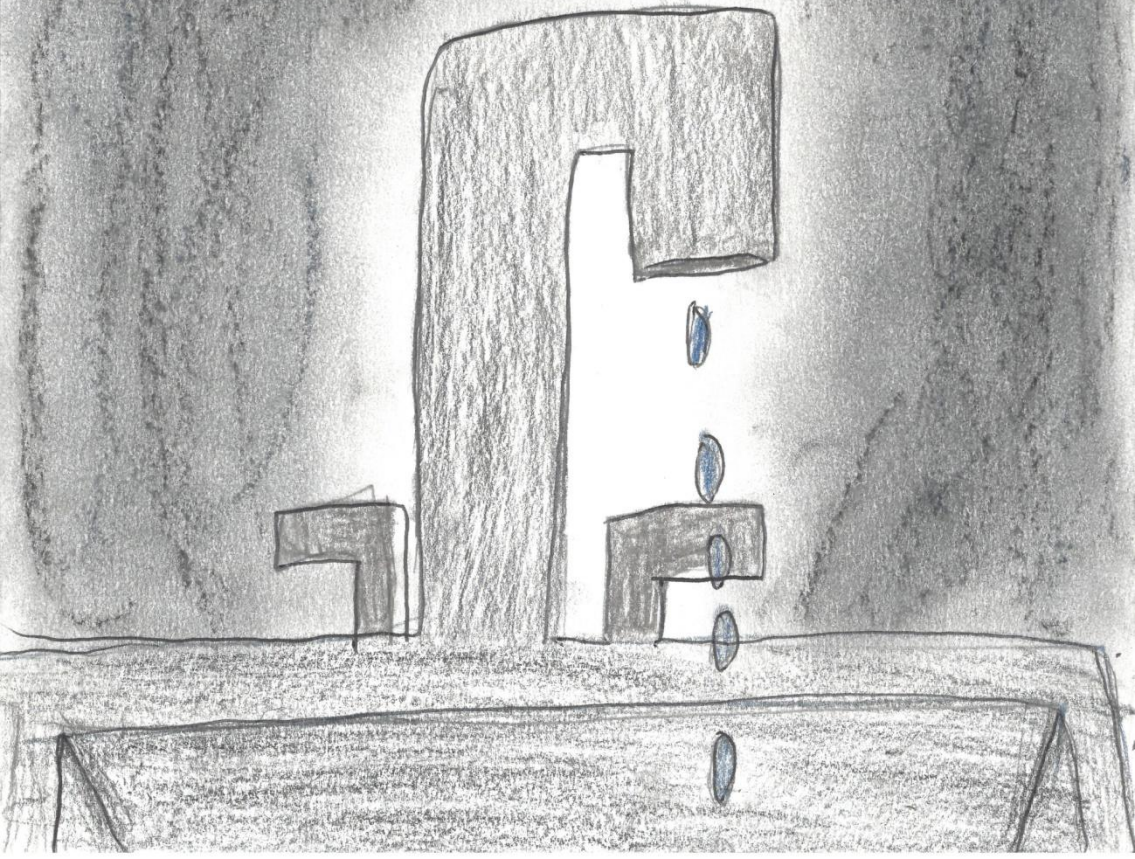
뭉여있어서 오지도 못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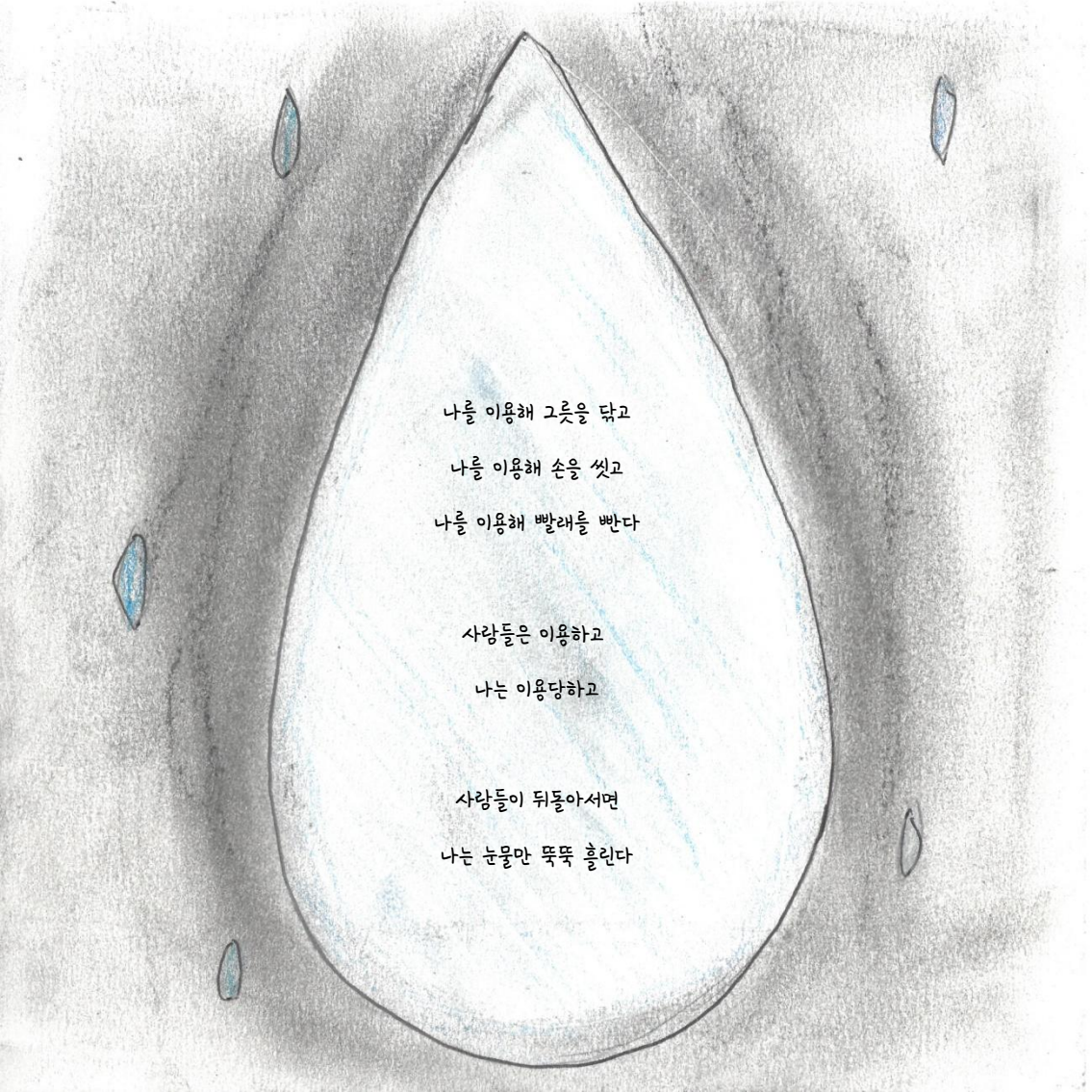
너무 시끄럽길래 혀를 꼰꼰 차면서

엄마 차 타고 갔다



수 도 꼭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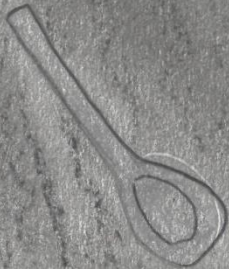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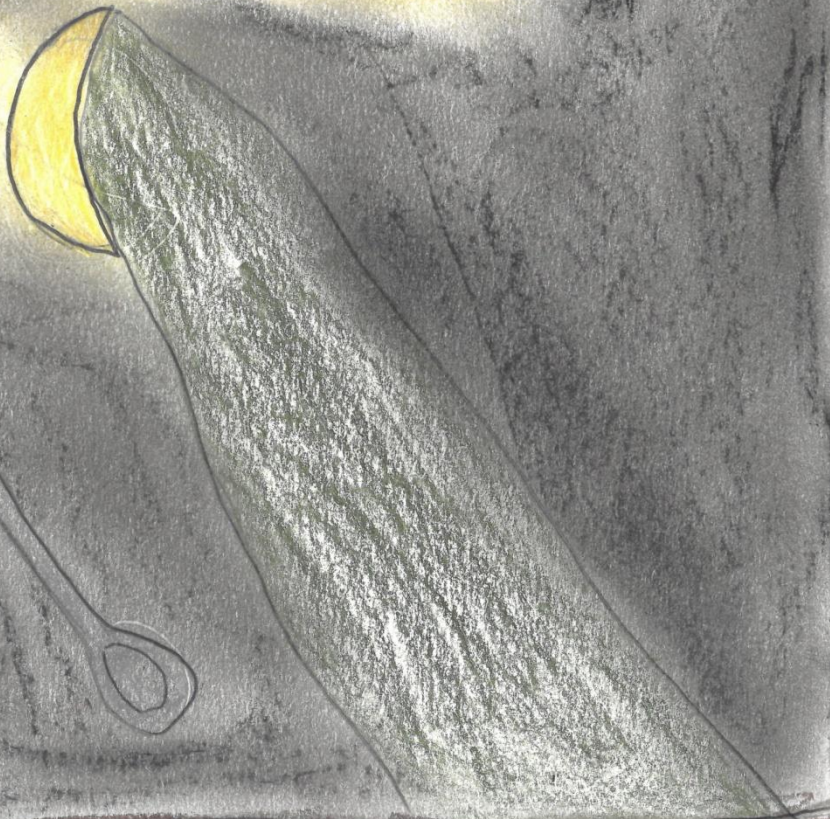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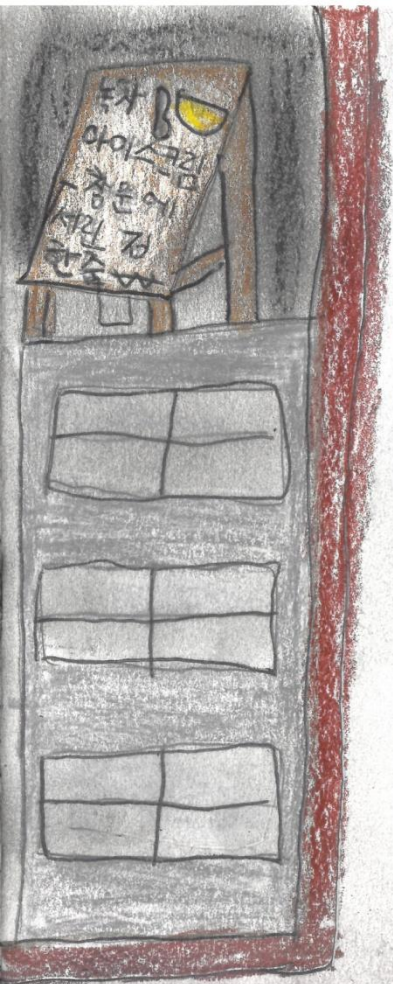
나를 이용해 그릇을 닦고
나를 이용해 손을 씻고
나를 이용해 빨래를 뻥다

사람들은 이용하고
나는 이용당하고

사람들이 뒤돌아서면
나는 눈물만 똑똑 흘린다

차가 레스트라
○ — — — — — ○





창문을 여니
보름달에 담긴
녹차 아이스크림

나는 얼굴까지 담가 버렸다

너무 많이 마셨나?

바람이 내 볼을
차갑게 얼린다



우울한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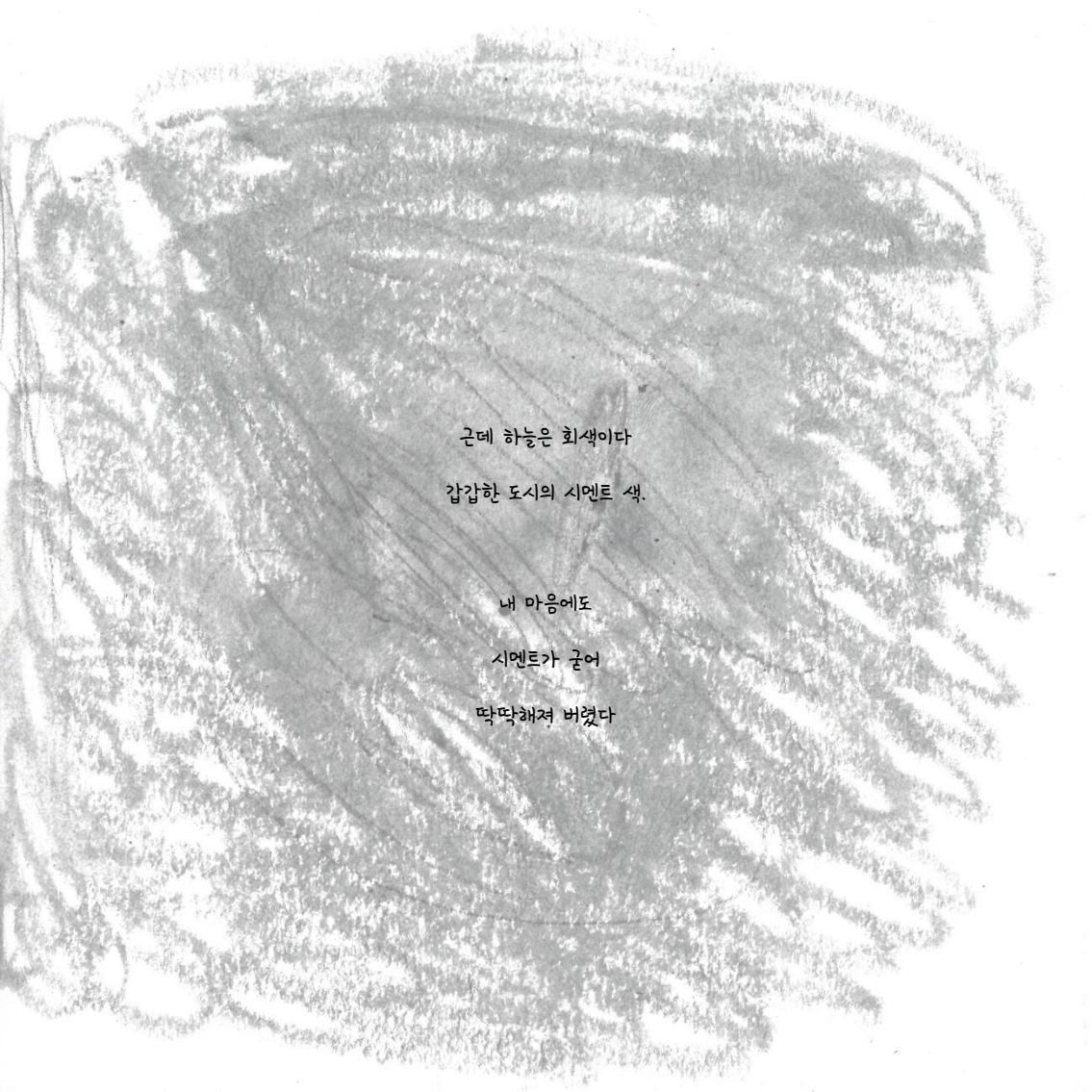
기분이 안 좋아서

울적하고 외로워서

하늘을 본다

파란 하늘 보면

파란 바람 불 까봐



근데 하늘은 회색이다
갑갑한 도시의 시멘트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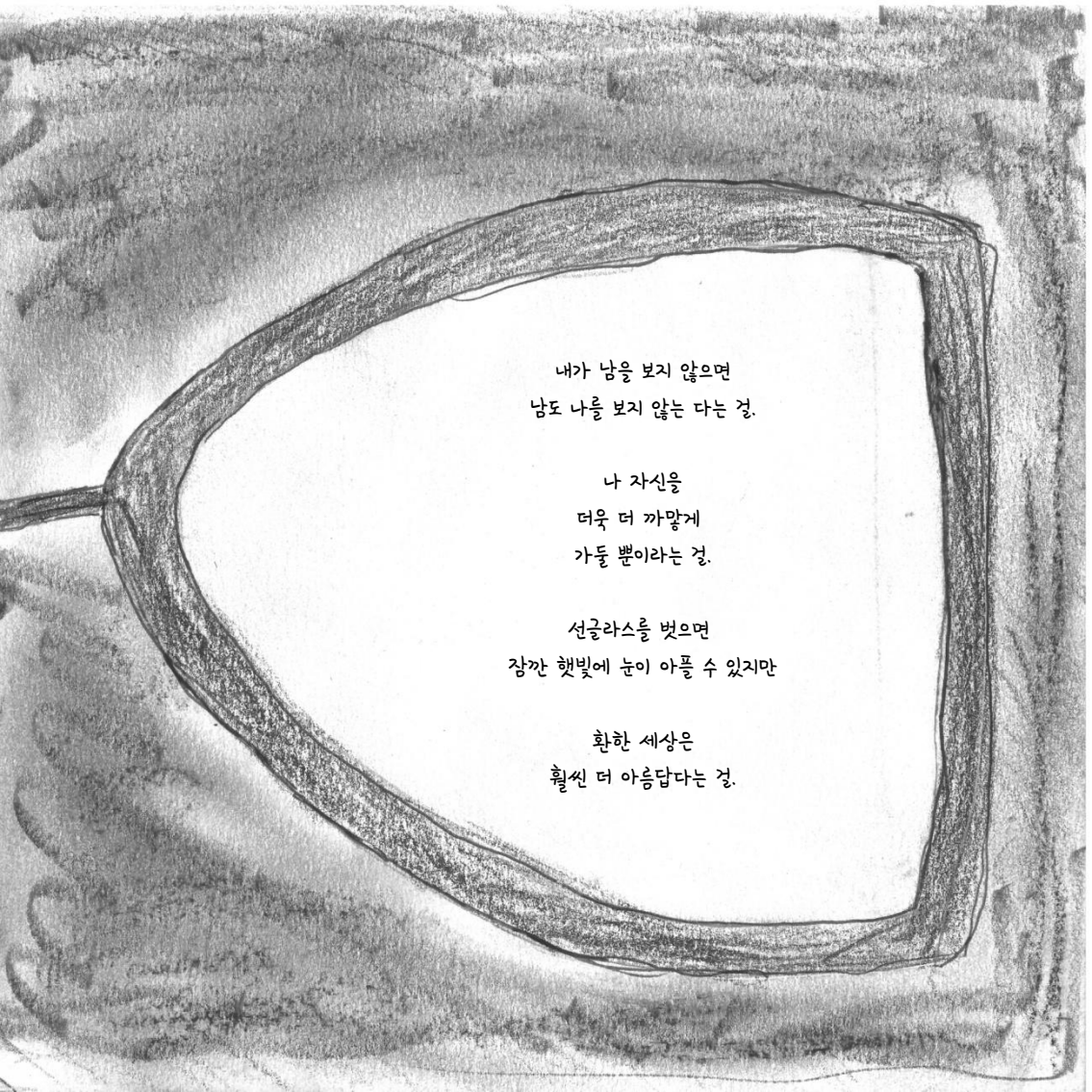
내 마음에도
시멘트가 굳어
딱딱해져 버렸다

까만 선글라스

까만 선글라스는
어둠에 갇힌 눈으로 세상을 본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는 아프고 싶지 않아서
어둠을 택했지만

왜 몰랐을까.



내가 남을 보지 않으면
남도 나를 보지 않는 다는 걸.

나 자신을
더욱 더 까맣게
가둘 뿐이라는 걸.

선글라스를 벗으면
잠깐 햇빛에 눈이 아플 수 있지만

환한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걸.

신은 없다

날마다 소원이랍시고

쓸 새 없이 불러내는 인간들 때문에

현기증 나 쓰러지셨다

신은 없다

조그만 땅 잠시 잠깐 가지고 있겠다고

온종일 평평 허뜨려대는 인간들 때문에

화가 나 몸져누우셨다



누구야!

거기서!

야!

어고 머리아...

도망쳐!



도시의 로맨스

어떤 사람은
로맨스를 가지고 싶어서

정원도 가꾸고
테라스도 꾸미고
가구도 바꾼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안되
텃밭도 가꾸고 쇼핑도 한다

왜 사람들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부족해서라고만 생각할까?

넘쳐서 그렇다고는
생각해보지 않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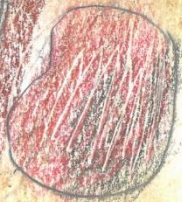
상자

상자 안에 사과가 있다
상자 밖에도 사과가 있다

몇 주가 지나
밖에 있는 사과는 한 쪽이 조금 썩었다
그래서 싱싱한 사과로 바꾸었다

하지만 상자 속 사과는
아무도 바꿔주지 못했다
1년 후 상자를 열어보았을 때
사과는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우리도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상자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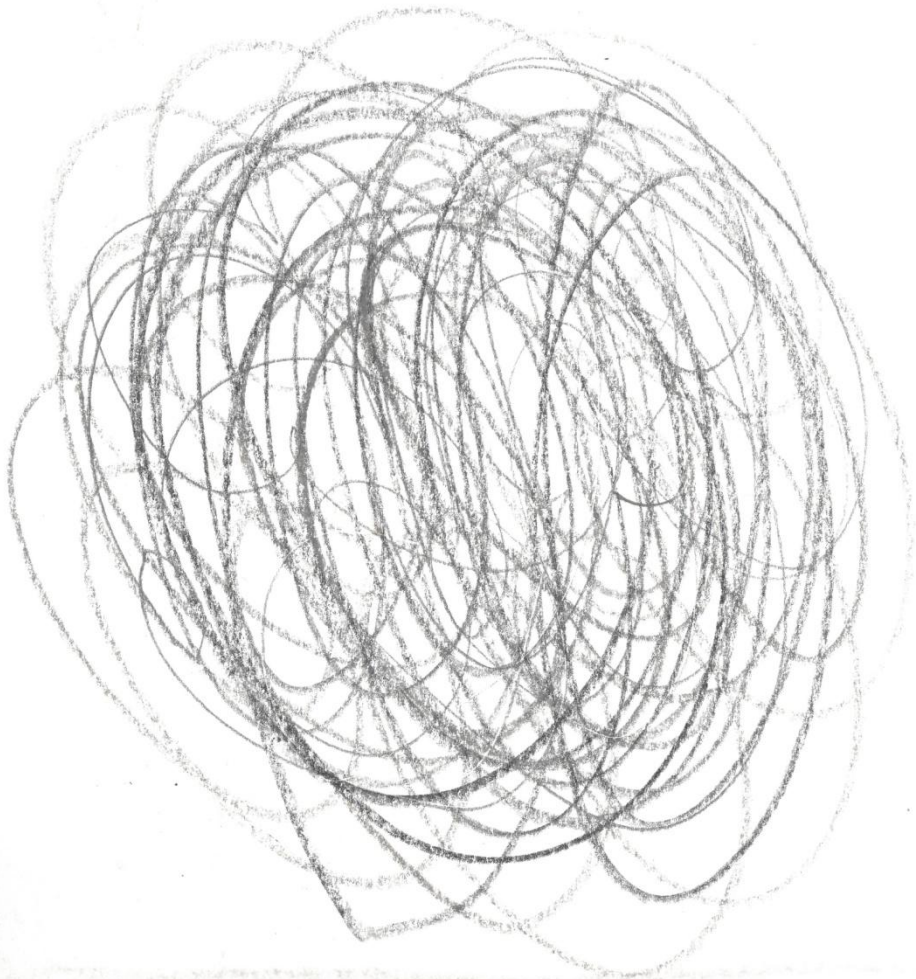
사춘기

사춘기
생각이 큰 시간

그 과정에는
부작용이 조금 있는 듯 하다
마음이 엉키고 꼬이니까.

나는 그걸 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크고 건강한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이 엉킨 마음이
더 엉켜버리지 않게
조심 조심
버리는 거다



행복

행복한 상황은 돈 많고 직업 좋고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불행~~ 할 사람은

~~불행~~ 하고 ~~수상~~ 할 사람은 ~~수상~~하다.

행복은 그리 까탈스럽지 않는다.

행복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행복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온다.



아쉬움



6시다. 해가 지고 달이 뜰시간.
달이 곧 오는데. 전기줄 타고 오는데.
해는 가기 싫은가보다.
헤질듯한 구름조각 붙잡고 농무려하지
않는다.



달이 오고 팔레트 위엔
아직 가시지 않은 해의 여운과
어린 밤의 색이 이미 헤진 구름 조각위로
사뿐히 끼어 있잖나

Philosophy

[통로, 스며 흐르다]

1. 흘러가다

교육미술관 통로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흘려보내는
연결통로(헨리나우웬, 2011)가 되고자 합니다.

2. 스며들다

교육미술관 통로를 통해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의 마음에 시와 그림이 되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박선영 시집 [전자자료] / 지은이 : 박선영
서울 : 교육미술관통로, 2019
전자책 책
ISBN 979-11-89671-20-4 75810 : 비매품
창작 그림책[創作--冊]

813.8-KDC6

CIP2018022904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 (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6007088)



비매출

75810



9 791198 744668

ISBN 979-11-957446-8-8 (PDF)
ISBN 979-11-957446-5-7 (세트)